





社說

제109회 총회에 대한 기대

제109회기 교단총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교단의 비전을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각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총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내외의 다양한 문제와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결정을 주관하시고, 각 교회의 필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결단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총회 감사를 마치고 총회에 소망을 보았다.

재정부와 각 부서 감사를 마친 후, 이제 우리는 제109회기 교단총회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감사는 교회와 교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운영을 해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마쳤다고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총회의 발전과 복음 사역을 위한 총회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어려운 가운데 세례헌금도 1천만원을 적잖아하고도 6백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재정 관리자에게 칭찬을 드리고 한가지 문제는 몇 노회가 상회비를 못내는 노회가 있고 세례헌금도 총대 자격으로 15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세례교인 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 문제점이다. 또한 각 부서도 행사마치면 잔액은 재정부로 입금하고 내년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정은 총회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단의 방향을 정하고, 각 지역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위에 굳건히 서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09회기 교단총회를 통해 각 총회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총회와 총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음교회 10대 변화평 목사 취임감사에배

9월 8일(주) 오후 3시 한마음교회(변화평목사) 예배 인도자 경기노회 서기 정용경 목사(세영교회)는 신앙고백 후 찬송 384장을 부른 후 부노회장 박병욱 장로(꽃밭교회)로 기도제 한 후 신령기 31:7-8, 여호수아1:1-9을 부노회장 오영진 목사(온세상교회)가 봉독후 한마음교회 황미경 집사의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노회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는 “하나님과 함께는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서약을 받았다.

담임목사 변화평 목사에게 한마음교회 교인에게 서약을 약속받고 취임공포를 하였다. 이어진 권면에서 성복시찰장 박광식목사(꽃밭교회)가 격려사에 종로시찰 박규식목사, 축사에 증경노회장 박동혁목사, 임홍직 목사(부평수봉산교회)가 하였다.

한마음교회에서 취임패를 송명호장로가 전달하고 변화평 목사의 취임사를 하고 정삼모 장로의 광고와 찬송1장을 부른 후 문용길 원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취임한 변화평목사는 충남대학을 졸업하고 총신 신학대학원(M.Div) Southw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세계밀알연합에서 장애인 선교단 본부에서 전 세계에 있는 밀알선교단을 섬기며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하였다.

한마음교회는 임시 당회장으로 박만진목사가 2023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청빙 1차, 2차에서 변화평목사를 공동의회를 거쳐 오늘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총회 세계선교회 선교사훈련 세미나 개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강대민 목사)에서 선교사 훈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월 9일(월)~11일(수)까지 개최된 선교사 훈련을 위해 많은 교회의 후원이 있었으며, 해외에서 귀국하여 참가한 현지현교사는 이번 참석자는 파라과이 최한준 선교사, 백수정 선교사, 필리핀 최상일 선교사, 박미숙 선교사, 김영상 선교사, 대만 김정민 선교사, 김경화 선교사 Y국 임박택선교사 후보생(필리핀) 이영훈목사, 한신영 목사 후보생, 공윤팔 목사, 김은광 목사, 장병수 목사 이상 13인이 참석하였다.

개회예배에는 서기 김요한 목사(송악관능교회)가 인도하였으며 이사장 강대민 목사(성현교회)가 환영사로 훈련에 참석자들을 환영하였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한 후에 찬송가516장으로 찬송하고, 김만술 목사(새목장교회)가 대표기도하였으며, 유남규 목사(어울림교회)가 특송하였고, 행13:1~5의 본문으로 총회장 김정호 목사(한소망교회)가 “하나님과 바울을 보낸 이유”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은혜를 받았다.

이후 증경총회장 류현옥 목사(동명교회)가 축사하였고, 세계선교회 사무총장 이다윗 목사(찬양교회)가 광고하였고, 증경총회장 장영광 목사(광일교회)가 축도하여 마쳤다.

이번 선교사 훈련을 위한 세미나는 세계선교회의 비전과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만큼 준비하는데에 열과 성의를 다하였으며 더불어 전국 교회의 세계선교회 이사 목회자들이 힘을 모아 강의에 임하였다.

강사로는 “선교사의 리더십”에 박형진 목사(새은혜교회), “세계선교 행정과 비전에 강대민 목사(성현교회), “선교사와 재정관리”에 박찬섭 목사(나눔의교회), “예수님의 공생애”에 유남규 목사(어울림교회), “A국 선교 현재와 미래”에 이수봉 목사(엘마요교회), “선교사의 경건생활”에 임승규 목사(호산나교회), “선교사와 미디어”에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 “선교와 양육”에 임종학 목사(재인교회), “선교사와 현지문화 적응”에 최상일선교사(필리핀), “개회주의 신학”에 이정근 목사(명안교회)가 강의를 위해 원근각처에서 참여하였다.

이사장 강대민 목사는 훈련에 참가한 전원에게 훈련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 숙식을 제공하였으며, 후원금은 참석하는 선교사들의 비행경비 일부와, 긴급병원비를 제공하는등 목적과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집행하였다. 세계선교회는 분명하게 나타난 주님의 뜻이므로 이 일에 총회적인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금번 총회세계선교사 훈련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 전세계를 향한 선교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광일교회 예배당 건축 현장을 가다.

광일교회(담임 장영광 목사)는 오랜 지역재개발의 시기를 지나 2023년 5월에 기존교회가 지역에 편입되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착공하게 되었다.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90%이상의 공정에 이르렀으며 입당을 위한 마무리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에 정착한 교회의 입장에서 광범위한 지역재개발은 매우 어렵고 불리한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한 과정을 겪는 동안 성도들은 타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했으며, 재개발 조합의 의회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교회의 위치가 재배치되어야 했고 펜데믹의 광풍이 불어 어려움을 더하였다.

광일교회의 건축은 외부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고 직영으로 건축하고 있다. 모든 공정을 직접 결정하고 지시하며 업체와 노동자들과 직접 마주하여 협의해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한다.

또한 목회와 더불어 건축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전에 교회를 직접 건축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직영건축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매일 수 없는 변수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였으니, 성도들과 함께 하나되어 기도하는 동안 어느덧 건축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후임 목회자를 이다윗목사(찬양교회)로 청빙하여 확정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부흥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건축되는 교회는 인근 15,000여세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며 광명시 전지역이 아파트 건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자연 유입 성장을 기대하게 하지만, 교회와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기에 더욱 주를 의지하여 개혁교단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문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혼 구원과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에 목회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GOOD TV와 함께하는  
강옥주 목사의 군산찬양축제

지난 9월 31일(토) 토요일 오후 4시 군산 임마누엘선교회(강옥주 목사)에서 전북지역과 군산지역 영성회복을 위한 찬양축제 본교단 전북서부노회 소속 강옥주 목사(임마누엘선교회)교회에서 우물가 합주단과 애향국악찬양선교단 연주, KUT호남전북본부장 정예은 문예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었다.

강옥주 목사의 찬양사역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린다. 문의: 강옥주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6844-0086

“한국교회 뭉쳐 한목소리를” 10.27 연합예배 지지 잇따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합심 동참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최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천환 목사)에 이어 또 하나의 교계 연합기관이 10.27 집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한국교회와 오는 10월 27일 주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며 “뜻깊은 종교개혁 주일에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취지는 나라와 사회에 밀어닥치는 거센 동성에 파도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의로운 행동이다. 본 한국교회연합도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합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이참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당부드린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만에 하나 갈등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욕을 돌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린다면 큰 힘이 나겠지만 100만, 200만 인원 동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하나님은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10월 27일 연합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불의한 세력에 흔들리는 사회 공의를 굳건히 세우는, 그 첨병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성욱 목사

경성노회 박성욱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경성노회 박성욱 목사를 제109회 부총회장으로 추천하오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노회 노회원 일동은 총회임원규정 제3장 12조 1항에 의거하여 박성욱 목사를 제109회 부총회장으로 추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성노회



김성근 장로

전북서부노회 김성근 장로를 장로 부총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전북서부노회 김성근 장로를 제109회 장로부총회장으로 추천하오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서부노회 노회원 일동은 총회임원규정 제3장 12조 1항에 의거하여 김성근 장로를 제109회 장로부총회장으로 추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서부노회



조직신학



유정선 교수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지난 호에서 우리는 완전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이 가능한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원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구원 가능성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정된 예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정설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와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반론들도 있으나 이번 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정된 예정특히 타락전 예정설에 관하여 볼 것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정이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강조하는 교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법칙으로 섭리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예정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인간의 자유의지에 앞서 선행(先行)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의 교리로 섭리론의 핵심이다.

예정에 관하여 핵심 구절인 엡1:4-6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5절의 “예정하사” προορισμός는 영어로는 Predestination으로 이는 인간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지하심에 근거하여 계획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정은 섭리의 일부라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섭리(Decrees)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과 계획 전체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품성적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상의하여 합의하고 결정하신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도 섭리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섭리의 큰 틀 안에 물질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법칙이 있는데 이를 보존 (Preservation)이라 한다.

이 보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의 세

계, 즉 있는 물질계체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우주 만물의 질서유지와 운행 및 변화의 원리 등 물질계 전반을 계획하셨고 이에 대한 법칙을 설정하셨는데 철학 및 자연과학계는 자연법(Natural Law)이라 하고 천문학계는 천행법(Sidereal Power)이라 부른다.

그러나 자연법이나 천행법은 물체 자체 내에 스스로를 규정짓고 운행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원리에 근거한 이론이기에 무신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보존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품성적인 존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법칙을 관여(Providence)라 하는데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운명 또는 숙명이나 불교권에서 말하는 업보 또는 윤회전생 원리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 주장인 것이다. 성서 우주관에 근거할 때 우주는 인간들만의 무대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천군 천사들, 사탄, 악령 등 그리고 생 태 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10625;식물들이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어 가는 세계로 이 모든 역사적 현실을 지배하는 원리 그리고 인간들의 생로병사를 지배하는 원리 등이 이 관여하심에 포함되는 사안들이다.

이 관여 속에 다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법칙이 바로 예정 (Predestination)인 것이다. 따라서 예정의 대상은 오직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로써 인간의 구원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예정에 관하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학자들의 각기 다른 이론이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가 타락전 예정설 (Supra Lapsalianism)이다. 이는 하나님의 종업성에 근거한 주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예정의 순서는 이중 예정, 즉 유기와 선택으로 구분하며 창조하시면서 타락을 허용하셨고 이에 구원을 제공하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는 구원반도록 선택된, 즉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봄으로써 제한된 대속(Limited Atonement)을, 성령의 은혜는 당연히 저할할 수 없다고 봄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Irresistible Grace)를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성도들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선택됐고 예정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구원 받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끌고 갈 성령의 추가적 역사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는 칼빈주의 진영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론으로 성도의 견인은 추후 구원의 확실성 교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 조직신학)

(지난호에서 이어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능동적 순종을 강력하게 주장한 신학자들은 의장으로 활약했던 고그(Willaim Gouge)를 비롯 해서, 윌킨슨(Wilkenson), 락서(Lazarus Seaman), 워커(George Walker), 스미스(Peter Smith), 군윈(Thomas Goodwin), 윌슨(Thomas Wilson) 등이 다. 최종적으로 1643년 9월 12일 투표를 통해서, “전적인 순종”이라는 표현을 지지하는 입장, 즉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자는 가택거를 포함하여 3명이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서 제70번에는 칭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는 그들 안에서 일어난 어떤 것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완전한 보속(the perfect obedience and full satisfaction)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인들에게 전가시키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다.” 이 문장에서, “완벽한 순종”은 능동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한 보속”이란 수동적 순종을 대체한 단어이다.

또한 대교리문답서 제92번과 93번에서도, 아담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이었고, 이것은 도덕법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지적했다.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고, 그것을 깨트리는 자에게는 죽음이 경고되었다”고 하였다. 필자는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칭의론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의미하는 “오전한 순종”이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여러 우려 때문에 빠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언약과 종보자 사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신앙고백서 8장 4항목에서 그리스도는 은혜언약에 따라서 “율법 아래 놓이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였다”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혹은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으로써, 아담이 실패한 일을 성취하셨다.

신앙고백서 8장 5항목은 “언약의 종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를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이 두 내용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 순종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완벽한 순종과 자신을 희생제물로(the perfect obedience and sacrifice of himself)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그러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해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사 주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언약신학에 대한 해석들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 통일성과 발전성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구속언약, 행위언약, 은혜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로움을 믿는 자들이 전가 받는다는 것은 아담과 맺은 행위언약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인하려면, 반드시 행위언약을 부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행위언약은 아담이 최초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언급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측면과 당하신 측면 모두 다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행위언약”이라는 신학 용어 역시 논쟁을 낳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정확하게 규정해 놓았으므로, 대부분의 개혁신교회와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서 피스카토르의 견해를 지지하던 리차드 벡스터는 대단히 논쟁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 받는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에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비록 소수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청교도 최고의 신학자, 존 오웬이 직면했던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 그리고 소시니안주의 등은 칭의 교리를 위협에 빠트리는 위험한 신학 사상들이었다. 오웬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 교리를 부정하는 리차드 벡스터의 신 율법주의를 배격했는데, 또한 예수회 벨라르민(Robert Bellarmine, 1542-1621),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와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소시니안파 쉬리호팅 기우스(Jonas Schlichtingius, 1592-1661) 등을 비판하였다. 1642년에 나온 존 군윈(John Goodwin)의 책 『믿음의 전가』에 대해서, 오웬은 『성도의 견인교리의 설명과 확증』(1654)을 출간했다.

(다음호에 계속)

동 정



김정호 목사(교단장, 한소망교회)  
8월30일(금) 전국장로연합회 총회 설교  
9월 6일(금) 11차 임원회 인도  
9월 9일(월) 총회세계선교회 설교



김익철 목사(직전총회장, 송도가나안교회)  
9월 3일(화) 총회선관위 임원회  
9월12일(목) 총회선관위 전체회의  
9월15일(주) 일본도교 가나안교회 예배인도  
9월29일(주) 세부 가나안교회 출국



임종학 목사(증경총회장, 재언교회)  
8월 26일(월) 말레이시아 선교  
8월 31일(토) 전국장로연합회 기도  
9월 9일(월) 세계선교회 축사



류현욱 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8월 30일(금)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에서 축도  
9월 2일(월) 전북동노회 고시부 고시위원으로 참여  
9월 7일(토) 전북개혁신학 신대원 개강예배 격려사



윤서구 목사(증경총회장, 임나무엘교회)  
9월 3일(화) 선관위 소유원회  
9월 5일(목) 총회감사  
9월 5일(목) 총회개혁공보 이사회



이경근 목사(증경총회장, 평안교회)  
8월1일(토) 전국장로연합회 수련회 축도  
9월 2일(월) 전북개혁신학원 개강예배 설교  
9월 8일(주) 이서교회 설립70주년 설교



박형진 목사(증경총회장, 새은혜교회)  
8월 30일(금) 전국장로연합회 강사  
9월 3일(화) 총회선관위 모임  
9월 9일(월) 세계선교회 강사



강대민 목사(증경총회장, 성현교회)  
9월 7일(토) 세계선교회 선교사훈련준비  
9월 9일(월) 세계선교회 세미나 주관



이다윗 목사(총회서기, 찬양교회)  
9월 6일(금) 총회 임원회 참석  
9월 9일(월) 세계선교회 예배참석  
9월10일(화) 제109회 의사자료 편집



김요한 목사(회의록서기, 송악관능교회)  
9월 6일(금) 총회임원회 참석  
9일 9일(월) 세계선교회 개회예배 인도



박병욱 장로(장로연합회장, 꽃밭교회)  
8월 30일(금) 장로연합총회 및 수련회  
9월 3일(화) 총회선관위위원회 참석  
9월 8일(주) 한마음교회 취임식 기도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8월 30일(금) 전국장로연합회 참석  
9월 5일(목) 총회 감사  
9월 5일(목) 총회개혁공보 이사회  
9월 8일(주) 한마음교회 담임목사 취임식 설교

탈 퇴 공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소속  
서대전노회와 교단을  
2024년 9월 1일부로  
탈퇴하는 것을 공고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대신  
경기노회 소속  
한마음교회 담임목사로  
공동의회에서 청빙 결의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일  
변화평 목사와 한마음교회 교인 일동

교육부 평가인정 원격교육기관

www.scyberedu.co.kr

blog.naver.com/scyberedu

# 서울사이버에듀 원격평생교육원

서울사이버에듀는 2009년 교육부 평가인정을 통해 학점은행제로 인정된 원격교육기관입니다.

학점은행제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대학교 중퇴자의 경우 학력을 개선할 수 있으며, 대학교 편입 및 대학원 입학에 위한 타전공 복수 학위 취득 또한 가능합니다.

서울사이버에듀 운영과목

2년제 학위	사회복지 전공, 경영 전공, 아동·가족 전공
4년제 학위	신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경영학 전공, 심리학 전공, 상담학 전공, 아동학 전공
자격증 과정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2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학위별 취득 학점 비교 \*단, 전공필수과목은 과목 또는 학점으로 이수(1과목 3학점 기준)

학위 구분	전공 학점	교양 학점	일반선택 학점
2년제 전문학사(총 80학점 이상)	45학점	15학점	21학점
4년제 학사(총 140학점 이상)	60학점	30학점	51학점

신학 학사 학위 취득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교회 직분을 능력있게 감당하려는 분, 더 은혜로운 예배를 사모하는 분,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분, 선교사의 길을 계획하는 분, 신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분

▶국내의 신학대학원을 비롯하여 해외의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 건강가정사 자격증 동시 취득 가능!

· 이론 전과목 100% PC, Mobile로 수강 가능 / 제주도 도서지역 상담 후 수강신청 가능

·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국 가능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충청도, 대전, 강원 (영동, 영서) / 전라도, 경상도

심리학 · 상담학 대학원 진학 희망자라면!

· 대학원 입학 조건인 '선이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대학원 진학, 전문상담교사 임용, 심리상담 전문가, 전문심리상담센터 등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학인서 취득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채용 의무화(국·공립 어린이집 취업 우대)

· 자격학인서 취득 기준 완화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소지 시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6층 | 신규학습문의: 1644-8056 | 행정문의: 032-465-4200



지상설교

도망친 요나

(요나 1장 1 - 16절)



서용진 목사  
(상춘교회)

니느웨 성은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로 여러 나라를 빼앗기 위해 악독을 저질러 ‘피의 도성’이라는 별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성을 향해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명령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과도 같습니다(마 28:18). 교회는 모여서 예배할 뿐 아니라 흠어져서 복음을 확장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도망친 요나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요나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를 보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욹바로 내려갔습니다. 이방 나라요 죄악의 도성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본 요나는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당할 조롱과 학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나’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할 성도의 삶에서 ‘그러나’는 조건부 불순종입니다.

요나의 이름에는 순결과 순종의 상징인비둘기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나 그의 삶은 질투와 불평과 편협심으로 순결을 상실하고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요나의 ‘그러나’에 하나님께서도 ‘그러나’로 대응하시사 대풍을 일으켜 요나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요나의 ‘그러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포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날마다 나의 ‘그러나’를 꺾어야 합니다.

2.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하라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 한 요나는 욹바로, 배 밑층으로, 산의 뿌리까지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삯을 지불했으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내려간다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모든 일에 불통뿐입니다.

뿐만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은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물질을

잃고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된 상태에서 그들은 풍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난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내 죄를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요나가 탄 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갖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명령을 받은 요나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게 하시려고 풍랑을 주시는 것임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시시각각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갖고 근원적인 해답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요나의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

광풍 앞에서 배에 탄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다른 신을 부르는 거짓된 종교 행위로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은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었음에도 요나는 풍랑 속에서 어찌해야 하는가를 묻는 무리에게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죽음 역시 해결의 방법이 못되며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요나를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우에 놀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종인 것에 놀라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놀랐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이방인들은 진실된 참회와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선원들의 회심은 요나서에 기록된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방인 구원을 위해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기어코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요르단 - 기독교 기반 장애아동 특수학교 10주년 맞이해

2014년에 설립된 요르단교육동맹(Alliance Academy Jordan, AAJ)은 유치원과 초등 2학년, 총 54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350명에 이르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했고, 이 학생들 중 17명은 중증 장애아동, 31명은 학습 장애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이미 23명의 장애아동이 이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이수했다. AAJ는 미국의 CMA(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로부터 후원을 받아 지난 10년 동안 요르단 암만(Aman)에서 중하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수업료로 학업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요르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년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자문 역할도 맡아오고 있다. 현재 이 학교의 교장으로 2019년에 부임한 마다나트(Salam Madanat)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한다면서 책임, 존중, 관계라는 교훈 아래 이 학교에 입학한 10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종교와 언어, 장애의 벽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그녀는 요르단 정부가 2025년까지 주요 도시 30개에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마다 장애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 중인데, AAJ가 이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버밍엄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의 벤선(Sarah Benson)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요르단에서 5세 이상의 아동 중 11%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는 19%에 그치고 있다.

요르단에서 기독교 교육기관의 이념과 교육 방침들이 일반 학교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요르단과 세계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자.

방글라데시 - 공무원 할당제 반대 시위에서 학생 150명 이상 숨쳐

방글라데시 정부가 독립 유공자의 후손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과 맞물려 지난 6월 다카(Dhaka)의 고등법원이 2018년에 추진됐던 할당제 폐지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공직은 3천 개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률 40%를 마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7월 16일, 다카 외곽의 자한기르나 가르대학교(Jahangirnagar University)에서 집권당인 아와미연맹(AL)의 학생 회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위는 격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진압 경찰들도 고무탄과 최루가스를 사용했다. 이후 시위대와 경찰이 전국에서 충돌하면서 다카의 국영 방송사 본부에는 불이 나기도 했고, 또 다른 도시에서는 수백명의 수감자가 탈주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150여 명의 학생들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이드(Abu Sayeed)의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했고 통령금지령까지 내렸다.

시위가 격화되자 7월 21일,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공무원 할당제를 인용한 판결을 뒤집고, 공직의 5%만을 유공자 후손에게 할당하도록 판결했다. 정부당국이 억압적인 시위 탄압을 중지하고, 청년 실업과 경제 위기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실마리를 찾아 방글라데시 사회가 속히 안정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인도네시아 - 데콥시에 위치한 교회,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해

2015년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데콥(Depok)시에 설립된 HKI(Huria Kristen Indonesia)교단 소속의 주안다교회(Juanda Church)가 강제퇴거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교회 설립 이후 교회 건물에 있는 부지가 인도네시아국제이슬람대학교(UIN)의 설립 과정에서 정부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150명 이상의 교인이 예배드리고 있는 주안다교회는 2021년 9월에 대학교가 문을 열면서 학교 당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전을 요구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PGI)는 2019년부터 종교부 장관에게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부지 사용 승인을 요청해 왔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듣지 못했다.

지난 6월, 종교부 장관과 국제이슬람대학교 교육국장을 초청한 토론회에서 교회 부지 사용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졌지만 종교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교회의 장로인 후타소이트(Toman Hutasoit)는 현재 위치에서 교회가 이전할 경우 교인들이 모두 흠어져서 될 점을 우려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교회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HKI 교단도 인도네시아 종교부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이념을 기반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주안다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HKI 교단과 인도네시아 교회가 복음 안에서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행정적인 문제로 어려움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랍에미리트 - 방글라데시인 3명, 시위 선동 혐의로 종신형 내려져

7월 21일,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Abu Dhabi) 법원이 방글라데시인 57명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직 할당제 반대 시위를 아부다비 곳곳에서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이들이 밝혀지지 않은 피고인 중 3명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징역 11년을, 나머지 53명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이들이 시위에 사용했던 모든 기기를 몰수할 것과 형기가 끝나는 대로 강제 추방할 것을 명령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외국인인 인구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시위는 사실상 불법이다. 방글라데시인은 파키스탄인과 인도인에 이어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이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법원이 임명한 변호인들이 범죄 의도가 없었던 이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대중 시위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이들에 대한 재심과 석방을 촉구했다.

반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다만 영사관을 통해 방글라데시인들에게 현지 법률을 존중하라고 당부했을 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위해 방글라데시와 아랍에미리트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논의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외국인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제재와 법집행이 줄어들도록 기도하자.

팔레스타인 -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 확산 우려돼

7월 1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위생과 관련한 질병의 전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칸 유니스(Khan Yunis)를 비롯한 6곳에서 채취한 하수 샘플에서 소아마비바이러스 2형(VDPV2)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소아마비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 대변인 린트마이어(Christian Lindmeier)는 성명을 통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등과 협력하여 즉각적인 예방접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포괄적인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25년 전 가자지구에서 근절되었고, 전쟁이 발생하기 전인 2022년 가자지구의 소아마비 예방 접종률은 99%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8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9개월 넘는 전쟁 기간 동안 대규모

이주와 보건 시스템의 파괴, 의료품 부족, 열악한 위생 상황이 조성되면서 팔레스타인 전역은 영유아 전염병이 확산하기 쉬운 환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인권사무소(UNHCR) 팔레스타인 지부장인 승하이(Ajith Sunghay)는 계속되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대응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14,000명 이상의 아동이 숨졌고, 현재 17,000명이 부모를 잃거나 헤어져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어 의료와 긴급구호, 복구 자원과 같은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차원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파키스탄 - 세 갈래의 파키스탄 장로교, 9월에 통합 총회 계획하고 있어

2018년 의장의 임기 연장을 둘러싸고 세 갈래로 분열되어 있던 파키스탄 장로교(PCP)가 다시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미 올해 3월 25일, 연합을 위한 교회 지도자 모임이 구지란왈라신학교(Gujranwala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개최된 바 있다. 카마르(Reuben Qamar), 시라즈(Arif Siraj), 길(Javed Gill) 목사 등 3명의 대표들은 매달 한 번씩 만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전국 교회를 함께 방문하면서 다가오는 9월에 통합 총회 개최로 지난 모임의 논의 결과를 가시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파키스탄 장로교는 2018년 이후 교단이 분열하면서 법적 소송이 시작됐고, 한쪽에서 은행 계좌를 폐쇄하면서 미국 기반 Outreach Foundation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지역사회개발 및 선교 사업도 중단되고 말았다.

카마르 목사는 교단 분열이 교회의 활동을 약화시켰고, 300개가 넘는 교단 내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길 목사는 교회 안에서부터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파키스탄 장로교뿐 아니라 파키스탄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연합을 강조했다. 파키스탄성서공회(PBS)의 사무총장 무스타크(Azhar Mushtaq) 목사는 핏박과 박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 살고 있는 파키스탄 교회가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장로교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핏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기도하자.

(다음호에 이어져)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김정호 목사



이사장  
권병락 장로



사장  
김의철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총회신학교	4,000,000	광 고 비	3,500,000	하늘문교회	50,000
김 정 호	2,400,000	6월 17일	350,000	육 한 수	50,000
김 의 철	6,600,000	경인 노회		송 중 업	100,000
권 병 락	5,100,000	이 상 철	50,000	모악교회	350,000
경기 노회	1,000,000	서원교회	300,000	이 영 진	50,000
전북 노회	1,000,000	서원교회구독	100,000	김보호산나	50,000
전북동노회	1,000,000	권 명 희	50,000	예성교회	100,000
전북중부노회	400,000	이 부 교	350,000	임 승 구	300,000
서울남노회	100,000	박 인 규	50,000	대한예수교장	300,000
서울동노회	500,000	조 성 윤	100,000	서 용 진	50,000
경서노회		박 속 희	50,000	김 해 수	50,000
전남 노회	100,000	노 연 수	50,000	수원침성교회	350,000
남부 노회	100,000	신 연 직	50,000	서 장 석	10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總 會

改革公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 · 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중학 목사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도대학	- 현 목사 사도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북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1. 접 수 : 2023년도
2.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3. 문 의 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4.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어려움때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신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여 총회신학연구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총회신학 연구원 직원일동



더불어 생각할 正論

##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총회



류현옥 목사  
(총경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장로교 교단들이 제 109회 총회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개혁신교 단도 금 번 총회 일시와 장소와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한 총회”라는 주제를 정하고 준비 중이다.

이 슬로건에 걸맞은 총회를 이루려면 총회 원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니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악육강식의 법칙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①성김의 법칙이다(막 10:45절). ②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다(행 20:35절). ③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짐의 법칙이다(마 23:11,12절). ④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마 5:44절). ⑤십자가를 통한 희생의 법칙이다(마 16:24-26절).

예수님께서는 성김으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됨을 이루신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께 발 씻기시는 장면을 보지 않았는가? 그때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저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다투고 분열하던 저들을 하나로 묶은 신 것이다.

1.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평화와 하나 됨에서 멀어졌다.  
죄로 인하여 분열과 나눔, 다툼과 분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자연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혜택을 주는 관계가 깨어져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누어지고, 국가 간에 나누어진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뉘었으며 동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는 자존심, 두려움, 부끄러움, 강포와 파괴, 분노와 원수맺음... 이렇게 나아간다.
2. 평화와 하나 됨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식물의 세계를 보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12:24절) 라고 말씀하셨다. 동물의 세계를 보자. 사냥이 많은 동물일수록 번식력이 강하다.

그러나 힘만 세고 포악한 짐승들은 멸종해 간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사랑이 화평케 하고,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이며 사랑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요,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요,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이 세상이 왜 시끄러운가? 주지 않고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많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 그래서 시끄럽고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꽃피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을 화평케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인간의 분열된 역사를 치료하고,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성김과 겸손, 화해와 용서, 희생 곧 사랑이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가 되어 가야 한다. 바울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설하셨다.(엡 1:9,10절) 이 말씀은 곧 평화, 하나 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부분을 씻고 닦으시기 시작하셨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으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다. 우리 총회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개혁신교 교단 109회 총회의 하나 됨을 위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희생하며 힘쓸 때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한 총회”가 될 것이고 우리 한국민족은 평화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이다.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중울산교회 담임)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공생애 3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 행하신 두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첫째는 잃은 양을 찾아 두루다시니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열 두 제자를 택하여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구국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다.

또 누가복음 14:25-27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되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를 택하여 훈련시키시고 또 제자들에게 모든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과 또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입으로만 주여주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것이다.

제자란 말의 희랍어 ‘마테데스’는 ‘스승에

게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는 자’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 즉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눅14:26-27), 첫째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의미인데, 즉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라”고 하신 둘째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다.

이어서 제자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조건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선하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10:17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시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 곧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종

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마 20:28).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동료 인간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본받는 작은 예수가 되어 참 제자의 삶을 사셨던 한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분은 아브라함 비닝거(Abraham Bininger)이다.

쾰리히 출신의 스위스 소년 아브라함 비닝거(Abraham Bininger)는 그의 부모와 같이 존 웨슬리(John Wesley)가 타고 왔던 것과 같은 배를 타고 덴마크에 왔다. 여행 도중 소년의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여 바다속에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그는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 없는 낯선 대륙에 홀로 내려게 되었다. 그는 어른이 된 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성토마스 섬의 흑인들이 천대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 곳에 파견될 것을 자청했다.

그가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노예만이

노예를 전도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사람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위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무지와 맹종의 상태에서 흑인들을 다스리기 위한 식민주의자들의 정책이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성 토마스 섬의 총독은 아브라함 비닝거가 서명한 편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그가 남은 여생을 충실하게 그의 동료들을 전도하는, 노예로서 봉사할 것을 약속하면서 신속히 노예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총독은 덴마크 왕에게 그 편지를 보냈고 왕은 그 편지에 감동해서 아브라함 비닝거에게 칙령을 보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그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신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종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면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주일이 되면 수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모여들지만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신자는 많은데,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제자를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당신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어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5-27) 우리 모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 전국장로회연합회 총회 및 수련회

회장 박병욱 장로, 총무 조성윤 장로 연임

8월 30일(금)~31일(토) 서천 유스호스텔에서 전국장로회연합회(박병욱장로) 총회와 수련회가 있었다.

오후 4시30분부터 새 은혜교회 찬양단에 경배와 찬양으로 총회와 수련회가 시작되고 5시에 개회예배 인도자 부회장 박인규 장로(모악교회)는 신앙고백 후 찬송 220장을 부른 후 김성근 장로(일송정교회)로 기도케 한 후 롬 14:8-9를 서기 이정 두 장로(인월동광교회)가 봉독하고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제로 총회장 김정호 목사가 말씀 선포하였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회계 김진문 장로(나원교회)가 기도하고 총무 조성윤 장로(길교회)와 교단 사무총장 박만 진 목사(덕수제일교회)가 광고 후 찬송 461장을 부른 후 증경총회장 류현옥 목사(동명교회)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노성배 장로가 축사하고 총무 장로와 인사를 드려자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저녁 식후 저녁 집회 인도자 회장 박병욱 장로(꽃밭교회)

는 찬송 267장을 부른 후 이영진 장로(좌포은총교회)로 기도케 한 후 눅 1:56-66을 노찬양 장로(재인교회) 봉독하고 배경숙 사모(덕수제일교회)와 새은혜교회찬양단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증경총회장 박형진 목사(새 은혜교회)가 “장로의 사명과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선포 후 찬송 461장을 부른 후 증경총회장 류현옥 목사(동명교회)가 축도함으로 마쳤다.

다음날 오전 8시40분 폐회 예배 인도자 이한일 장로(소성교회)는 찬송 323장을 부른 후 김현윤 장로(새은혜교회) 기도케 한 후 뱀전 5:1-4 안영조 장로(동산교회)가 봉독하고 52회 임원들의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란 주제로 증경총회장 박형진 목사(새은혜교회)의 말씀선포 후 특별 기도 순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노수일 장로가, 교단발전을 위하여 김연수 장로가, 교단 산하 개체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김순호 장로가 전국장로회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송중엽 장로가 기도하고 찬송 1장을 부른 후 증



경총회장 이영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제52회 총회 사회장 박병욱 장로는 증경 권병락 장로(서현교회)로 기도케 한 후 서기 이정두 장로(인월동광교회)로 회원점 명하고 개회를 선언하였다.

회순채택과 전회록 낭독, 감사보고, 회계보고 사업 경과보고 고을 유인물로 받기로 하였다.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병욱 장로(경기노회/꽃밭교회) 부회장 박인규 장로(전북/모악) 김현윤 장로(경서/새은혜) 김성근 장로(전북서부/일송정) 안영조 장로(전북중부/동산) 총무 조성윤 장로(전북/길교회) 서기 이정두 장로(전북/인월동광) 부서기 노찬영 장로(전북중부/재인) 회의

록서기 류큰별 장로(동명교회) 부회록서기 장근영 장로(경서/꿈꾸는) 회계 김진문 장로(전북/낙원) 부회계 유현식 장로(전북중부/삼일교회) 감사 김연수 장로(전북/서문), 김순호 장로(전북중부/재인)로 선임되었다.

신,구 임원교체 후 증경회장 김일출 장로(소성교회)에 격려사가 있었다.

한편 이번 총회와 수련회는 코로나 후 많은 교회와 목사님께서 찬조를 보내주시고 장로님들의 협찬으로 풍성한 선물로 모처럼 축제의 모습을 보고 다음 총회와 수련회를 기대하고 단합된 장로연합에 큰 용기와 기대를 주었다.



홍주일 목사

전북노회 **홍주일 목사**를 서기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전북노회 **홍주일 목사**를 제109회 서기로 추천하오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노회 노회원 일동은 총회임원규정

제3장 12조 1항에 의거하여

홍주일 목사를 제109회 서기로 추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



김종화 목사

서울동노회 **김종화 목사**를 부서기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서울동노회 **김종화 목사**를 제109회 부서기로 추천하오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노회 노회원 일동은 총회임원규정

제3장 12조 1항에 의거하여

김종화 목사를 제109회 서기로 추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







재미있는 광야의 도

재미있는 광야의 도-3

요한계시록은 헤브라이즘 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원리 중심이라는 의미이다. 사도요한 당시의 세계는 인본주의인 헬레니즘과 신본주의인 헤브라이즘이 충돌하는 시대였다.

로마제국은 인간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헬레니즘 사상을 따랐지만 기독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헤브라이즘을 따랐다. 모든 성경의 사관이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 역시 헤브라이즘적 사관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로마제국 당시의 평민 언어인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혹자는 헬레니즘적 사관으로 풀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언어가 헬라어라고 요한계시록이 헬레니즘의 사관으로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계시록 증거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정경을 여행할 때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이성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진 것이다.

기록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썼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록자인 요한은 정통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적 문화와 전통 속에서 자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헤브라이즘으로 무장된 사람이다. 당시에 히브리인 중에도 헬라의 고등 지식을 익혀 헬라적 사고를 가진 이들이 있었지만 요한은 그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초등 지식만을 익힌 어부 출신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단편적 지식과 숲의 나무 하나 하나를 이성적으로 묘사하는 헬레니즘에 비하여 헤브라이즘은 종합적인 원리중심이고 숲 전체를 관통하는 길을 묘사하는 방법을 중시한다. 헬레니즘은 의지적으로 알려고 하는 능동적 사상인데 반하여 헤브라이즘은 원리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피동적인 사상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헤브라이즘적 원리 중심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냥 알게 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성적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본적인 책이 결코 아니다. 은혜로 알게 되는 책이다.(계 1:17) 성경의 대부분은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쓴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사건 사고 스토리가 원리중심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기가 그렇다.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원리에 따라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 사고가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박공서 목사  
(새부천교회 담임)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모형으로 구원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것은 구원의 매뉴얼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이긴 자가 되어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계2:7)

대체신학자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백성과 맺었는데 그들이 거부하여 이방인에게 대체되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약성경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기념품정도의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그릇된 사상이 현대 교회 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구약 성경 모두는 현대의 우리에게 절대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원리중심의 헤브라이즘적 관점이 없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역시 정통 히브리인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 방식이 철저히 비유를 사용한 원리중심적이었다는 것이다.(마13:34)

그래서 인본적이고 헬라적 사고를 가진 고등 지식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시 무식한 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했다. 요한계시록은 환란과 고난의 책이다.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광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대환란은 상징일 뿐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대환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땅에 들어갔다고 우겨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광야에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 아말렉 족속 같은 이방군대의 침략 같은 것이 있듯이 그 원리에 따라 영적 광야인 대환란에도 첫째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의 어려움과 열뿔과 두뿔 짐승 그리고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광야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백성들의 훈련을 위해 절대적이듯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환란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훈련을 위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직전에 다 휴거되기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불신자나 육적 유대인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옳지 않다.

성경 전체의 원리를 무시한 견해이다. 구약에서 광야에는 누가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 영적 원리에 따라서 극소수의 압록이 된 휴거 성도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바이블칼럼



배수영 목사  
(예스글로벌교회 담임)



- 4.1 한국인에게 부정적, 긍정적 정서
- 4.2 한국인의 독특한 한의 종류
- 4.3 맺힌 한을 치료하는 본질적 방법
- 4.4 천년 묵은 한이라도 능히 치유하심

4.1 한국인의 부정적, 긍정적 정서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할 때,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를 나눌 수 있다. 한국인에게서는 긍정적 정서도 많다. '행복', '감사', 그리고 만족 등이 그렇다.

긍정적 정서라는 요소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그러나 부정적 정서를 외면하고선 한국인의 감정을 옳게 말할 수 없다.

한국인에게 아주 독특한 감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한'이라는 단어의 감정을 말하겠다. 어쩌면 이 한은 한국인에게 스며있는 대표적 감정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부정적, 긍정적 정서를 대하는 태도

부정적 정서 '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긍정적 정서 '행복, 감사, 또 만족' 등을 인정한다

칼럼



경북노회장 정영진 목사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언제나 찬양의 기쁨 부르심을 아래에서 생활한다. 매일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며 하루를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 아래서 시작하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앉드린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지 못하면 육신의 힘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됨을 알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찬양됨을 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찬

한국인의 대표적 감정 '한'  
The Bitterness of Koreans

4.2 한국인의 독특한 '한'의 종류

한의 종류는, 첫째, '정한' (情恨)이 있다. 그리움, 슬픔 등 간절히 바라던 것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발산하지 못해 쌓이는 감정을 말한다.

둘째, '원한' (怨恨)이 있다. 이는 미움, 복수, 적개심이나 증오심 등으로 쌓이는 감정을 말한다.

셋째, '회한' (悔恨)인데, 죄책감으로 누우칠 때, 타인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입혔을 때, 심적 깊은데서 오는 감정이 다. 아마 다윗이 이런 감정에 많이 시달린 장본인일 것이다.

넷째, '통한' (痛恨)은, 자신의 삶을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환경에 빼앗겼을 때 오는 손해나 배신감이며, 또는 자신의 에너지가 원치않은 환경으로 변할 때, 급작스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오는 긴장이나 증압감에서 쌓이는 감정을 말한다.

한국인의 독특한 '한'은 누구에게나 찾아옴

정한(情恨)/원한(怨恨)/회한(悔恨)/통한(痛恨)  
여기, 한의 종류, 그것에 침착하지 말아야 한다

4.3 얹히고 맺힌 한을 치료하는 본질적 방법

이렇게 얹히고 맺힌 한을 치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치료방법과 정신적인 치료방법이 있다. 대개 그런 방법 중 자기와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맺힌 한을 내 존재 밖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리적, 정신적인 치료 방법을 초월한 영적(靈的)인 방법이다. 바로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해 한의 감정을 본질적으로 푸는 방법이다.

실제적 방법은 먼저 자신의 내부적 상황(온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내놓아야 한다. 마치 의사 앞에서 자신의 증상을 진술하듯이

원하고 맺힌 한을 치료하는 방법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내부적 상황을 숨김없이 진술한다  
치유자는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배푸신 분이이다

4.4 천년 묵은 한이라도 능히 치유하심

바로 이것이다. 아무리 풀리지 않는 천년 묵은 한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깊고도 아픈 한의 상처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근원적인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능(萬能)의 손길을 통해서 어루만지며 치유(治癒)해주시 때, 그때 모든 한이 눈 녹듯 풀리게 될 줄 믿는다.

천년 묵은 한이라도 능히 치유하심

치유자는 우리의 '아픈 한'을 마냥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  
치유자는 아무리 풀리지 않는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신다

신령한 성도의 복

양이 되었기에 신령한 찬양의 기쁨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하여 내 영혼의 생명수가 흐르도록 채우며 생활해야 한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 비밀스러운 그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경륜이 넘칠 때까지 앞도려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기쁨 준비하지 못한 자칭 신부들은 그들의 영혼이 공허함 속에 살고 있음에도 나름 고급스러운 등 찬을 가졌다고 자랑 하나 진실은 텅 빈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신만 모른다.

별거벗은 임금과 같이! 믿음의 사리본별력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이기에 말씀을 떠난 거짓을 알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동차에 경유를 넣어야 할 쯤, 휘발유를 넣어야 할 쯤, 전지를 공급해야 할 쯤, 차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가?

차종과 상관없이 그 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이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 하시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 부으심으로 날마다 새 은혜로 새 찬양으로 자신의 영혼이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이다.

성령의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지시함이 없는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천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기에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힘쓰며, 그의 힘과 능력의 역사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며, 감격스러운 나의 영혼의 기쁨으로 새 노래 새 찬송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호산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div></div></div><div>담임 임승구 목사</div><div>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1번길 39 전화 010-6233-1044</div></div>	<div><div>동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샤: 9:30</div></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548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64-5180 / 010-9654-5180</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샤: 9:30</div></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프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	<div><div>디베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샤: 9:00</div></div></div><div>담임 신연식 목사</div><div>10008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39-7 전화 010-5438-0811</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찬양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샤: 9:00</div></div></div><div>담임 정완득 목사</div><div>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안산시 삼천천2길 24-6(삼천동1가) 전화 010-7285-8291</div></div>
<div><div>서현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샤: 9:00</div></div></div><div>담임 최현 목사</div><div>5505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 1길 18-3 전화 010-7937-1391</div></div>	<div><div>높은뜻세움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밤예배: 1부 9:00                   2부 11:00 주일밤예배: 7:00 금요일샤: 9:00</div></div></div><div>담임 김선영 목사</div><div>22859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25 동양패러곤A 단지내 정문 옆 전화 010-2307-0898</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3:00 수요일밤: 7:30 구역예배(금): 오후 7:30</div></div></div><div>담임 윤서국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망로534번길 6-8(산성동) 전화 010-3722-9106</div></div>	<div><div>중울산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3:00 삼일밤: 7:00 금요일밤: 9:00</div></div></div><div>담임 김정웅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243-0344 / 0010-3848-0691</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30</div></div></div><div>담임 박준호 목사</div><div>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1길 16-11(삼천동1가) 전화 (063)226-9111 / 010-9278-5653</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오후 3:00 수요일밤: 7:30</div></div></div><div>담임 박준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	<div><div>연결고리패밀리처치</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1부예배 09:30 2부예배 11:20</div></div></div><div>담임 김명군 목사</div><div>1004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사리로 329-21(유현리) 전화 (031)998-5025 / 010-5028-4319</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샤: 9:00</div></div></div><div>담임 박국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상월곡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	<div><div>예스글로벌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기도: 4: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밤: 7:30 금요일샤: 오후 9:00</div></div></div><div>담임 배수영 목사</div><div>01489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6길 1709-203 전화 010-3088-0191</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밤: 9:00</div></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



# 제108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총회장 김정호 목사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망교회 김정호 목사 2,000,000원	 송도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 6,000,000원	 천양교회 이다윗 목사 300,000원	 어울림교회 유남규 목사 500,000원	 은성교회 박현성 목사 100,000원	 송악관동교회 김요환 목사 200,000원	 성현교회 강대민 목사 400,000원	 연결고리매일처치 김명균 목사 3,000,000원	 예수교회 김해수 목사 150,000원	 한아름교회 박만진 목사 250,000원	 수원성심교회 박춘배 목사 1,380,000원	 나눔의교회 박찬성 목사 200,000원	 꽃밭교회 박광식 목사 500,000원	 덕소제일교회 박형진 목사 350,000원	 새문교회 박형진 목사 500,000원	 디베라교회 신연식 목사 200,000원	 반석교회 이부교 목사 300,000원
 꿈꾸는교회 이현주 목사 200,000원	 동산교회 박숙희 목사 170,000원	 계룡교회 공운팔 목사 200,000원	 은혜로교회 이철영 목사 150,000원	 동명교회 류현욱 목사 600,000원	 하늘문교회 이하중 목사 200,000원	 상촌교회 서용진 목사 150,000원	 남광교회 최강철 목사 1,000,000원	 임마누엘교회 김종화 목사 200,000원	 중흥교회 김정웅 목사 200,000원	 사랑의교회 송영엽 목사 150,000원	 새목장교회 김만술 목사 150,000원	 은혜교회 이선우 목사 150,000원	 더불어교회 강일신 목사 200,000원	 군산예안교회 노연수 목사 150,000원	 은동교회 김다운 목사 150,000원	 평안교회 이경근 목사 500,000원
 빛과진리교회 양정자 목사 150,000원	 임마누엘교회 윤서구 목사 1,010,000원	 김포로신교회 임승구 목사 150,000원	 금상교회 채영구 목사 200,000원	 강남교회 배옥선 목사 300,000원	 성령의교회 정인직 목사 150,000원	 좌포은교회 주상기 목사 150,000원	 한빛교회 임용태 목사 500,000원	 온전교회 정대진 목사 150,000원	 홍주교회 홍주일 목사 300,000원	 은혜평강교회 김대성 목사 150,000원	 평화문교회 양기만 목사 150,000원	 예배예교회 진상운 목사 200,000원	 성이교회 정완득 목사 520,000원	 오버플로우처치 박성욱 목사 300,000원	 높은뜻세움교회 김선영 목사 150,000원	 새영교회 정영경 목사 150,000원
 은혜성교회 오영진 목사 150,000원	 낙원교회 김종봉 목사 270,000원	 재인교회 김규배 목사 630,000원	 생명공동체교회 하예성 목사 150,000원	 천안관동교회 오성원 목사 150,000원	 장수온교회 신장균 목사 200,000원	 예수사랑교회 노석두 목사 150,000원	 글로벌교회 배수영 목사 100,000원	 은혜동산교회 서만성 목사 150,000원	 새부전교회 박공서 목사 150,000원	 소성교회 박준호 목사 500,000원	 효자제일교회 김황용 목사 150,000원	 천양교회 정대천 목사 200,000원	 울릉교회 김남식 목사 150,000원	 서현교회 최현오 목사 300,000원	대한예수교장 110,000원	

기대주전

농협 301-0116-921281  
국민 488401-01-225487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대신교단

총회장 김정호 목사  
서기 이다윗 목사

0312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45,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358-0109



## 사이버 총회신대원 모집요강

본 **사이버 총회신대원**은 개혁신학 신조에 입각하여 깊이 있는 신학교육과 연구과정을 통해  
신본주의와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 온 교회와  
열방에 선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우리 교단의 사이버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 ■ 운영

- ① 교육 과정명 : 목회연구과정(M.Div.EQ)
- ② 교육기간 : 1년 6개월(연 4학기운영, 총6학기)
- ③ 이수학점 : 96학점(졸업논문 포함)
- ④ 교육방법 : 영상수업(on-line)과 대면수업(off-line) 병행

### ■ 특전

- ① 본 총회신학원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 가능
- ② on-line & off-line 수업 병행으로 학비와 시간 절감
- ③ 본 교단에 준목고시 후 각 노회에서 목사안수 가능
- ④ 다양한 장학 제도

### ■ 과정 별 강의계획서 보기

1과정 강의계획서 >> 2과정 강의계획서 >> 3과정 강의계획서 >> 4과정 강의계획서 >> 5과정 강의계획서 >> 6과정 강의계획서 >>

### ■ 자격

- ① 4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
- ② 본 총회신학원이 인정하는 학력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 ■ 교육과목 (과목변동가능)

- ①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과목별 3학점), 졸업논문(4학점)
- ② 졸업논문은 P/NP로 학점을 부여함.

### ! 특별진학

-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1학기 off-line 과정후 준목고시 자격
- ▣ BA학사와 석, 박사학위 과정, 필리핀 시립대학교와 MOU
- ▣ 학위 취득 및 장학 관련 문의는 총회신대원으로 문의하세요.

문의 : 사무총장 박만진 010-6358-0191

[http://rpck21.thezonedu.co.kr/gmi\\_b2b/rtMain\\_rpck21.html](http://rpck21.thezonedu.co.kr/gmi_b2b/rtMain_rpck21.html)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대원 원장 임종학 박사

0312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45,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358-0109